

# 이르면 7월 국제선 재개... 항공업계, P-코로나 준비 박차

〈포스트 코로나〉

제주항공·진에어·아시아나 등  
괘·사이판 노선 운항, 계획 마련  
대한항공, 국내·국제선 전노선에  
국내최초 '수하물탑재 안내서비스'  
티웨이, LCC 첫 IATA트래블 패스



대한항공 항공기.

항공업계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제선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이 가능한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한다. 출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대국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관광이 가능하다. 현재 싱가포르와 단체여행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 부문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 당국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항공업계는 국제선 운항을 위한 각종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며 여행 수요가 대폭 줄어 대부분 국제선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항공사는 주 1회 괘, 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이거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약 1년 3개

월 만에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진에어는 주 1회 괘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인천-괘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사이판 노선의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지난 달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전 노선에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승객이 수하물을 부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기 탑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향후 승객이 늘어나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은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위해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추진 중인 '트래블 패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IATA 트래블 패스란 항공 여행을 하는 승객이 각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여부를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 현재 종이 문서로 이뤄지는 검증 절차보다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티웨이항공도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최초로 IATA 트래블 패스 시범 운영 실시에 합의하며 국제선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 전 트래블 패스 앱을 통해 여권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해 본인의 입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티웨이항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반등할 여행 수요에 대비해 중대형 항공기 A330-300 3대를 내년 2

월부터 5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해 국제선 운항이 활발해지면 호주 시드니, 크로아티아, 호놀룰루,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노선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변화할 항공 시장에 발맞춰 최근 LG CNS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항공 산업의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정비 이력, 항공 종사자 자격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항공 산업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한편 글로벌 항공 동맹체 3사도 업황 회복 기대감에 직접 G7 정상회의서 국가 공통의 여행·보건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스타얼라이언스·원월드·스카이팀은 ▲백신 접종 완료 시 입국 후 격리 면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낮추되 접근성과 신뢰성 확보 ▲중간 기착지 미입국 환승객에게 추가 검사, 격리 면제 등을 권고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실시간 차량관리, 자율주행 등 '미래차' 위해 車업계, 앞다퉈 '커넥티드' 도입 경쟁

볼보트럭코리아·만트릭, 신차 공개  
차량 정비시기, 운전습관 등 모니터링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 유보  
차량 무선통신 '텔레매틱스' 도입

자동차 업계가 커넥티드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나섰다.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면서 긴급 서비스와 실시간 차량관리, 콘텐츠 서비스를 비롯해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까지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트럭코리아는 최근 '볼보 커넥트'를 국내 업계 최초로 론칭했다.

볼보커넥트는 무선 통신으로 서버와 연결해 긴급 호출뿐 아니라 원격으로 차량 정보를 모니터링해 정비 시기와 고장 등 차량 상태를 상시 관리 받을 수 있다.

만트릭도 최근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리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파악하고 예방정비까지 제공해주는 원격 서비스다.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차에도 도입될 것.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차량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자동차 블루링크와 기아 유보가 대표적, 상용차에도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텔레매틱스는 종전까지 긴급 호출이나 정비 예약, 원격 시동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들어 차량이 대부분 전자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쓰임이 대폭 늘어났다. 영상이나 음악 등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위치 탐색과 결제, 개인화와 인공지능(AI)까지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 커넥티드다.

제네시스 커넥티드는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 공조 및 시트를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차량 이상을 감지해 원격으로 점검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항 습관을 분석해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다.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OTA) 역시 커넥티드 서비스로 이뤄진다.

수입차 업계도 커넥티드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019년 벤츠와 BMW가 각각 '메르세데스미'와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아우디를 비롯한 폴크스바겐그룹 브랜드들도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도 올해부터 LG전자와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피비프로'를 통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에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텔레매틱스 서비스에는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하다. 차량에 통신 모듈을 장착하는 것뿐 아니라,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S를 개발해야 하고 현지에서 서버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최근 자동차 업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약을 맺거나 업체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동화와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에 연간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브랜드가 발빠르게 자체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알려졌다.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선불리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업계가 서비스 구축에 힘을 쏟는 이유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차량 관리와 콘텐츠 제공뿐 아니라, 수준 높은 자율주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커넥티드 서비스, 텔레매틱스가 필수다.

/김재용 기자

## 제조업계, '친환경 신사업' 세제지원 절실

대한상의, 친환경 신사업 실태·과제  
42% 세제지원, 39% 법 합리화 필요  
62% 추진계획 없다, 21%만 '추진중'

제조업계에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실태와 과제'를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42%가 친환경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세제·금융 지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법·제도 합리화'(38.7%), '정부 R&D 확대'(17.7%), '인력양성'(1.6%)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62.3%나 됐다. 20.7%가 추진중이고, 추진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친환경 신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2050 탄소중립, 탈(脫)플라스틱 등 국내외 환경정책 대응'(38.6%)이 가장 많았고, 'ESG경영실천'(27.9%),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24.3%), '이해관계자 요구'(7.1%)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실제로 적지 않은 국내 제조사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신사업 아이템으로 접근하거나, 기존 주력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친환경 신사업 분야는 탄소감축사업

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사업'(30.1%),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28.3%), '환경오염 저감 사업'(16.8%)도 많았다.

추진단계는 '사업검토'(40.7%) 또는 '착수 단계'(26.6%)가 많아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해외 제조기업은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R&D와 대규모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제조기업도 강점인 글로벌 Top수준의 기술·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친환경 신사업 시장을 선점한다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

## LG유플러스, 안양에 IDC 평촌2센터 착공

축구장 6개, 지하 3~지상 9층 규모  
수도권 7번째 IDC... 2023년 준공

LG유플러스가 축구장 6개를 합친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 평촌2센터(가칭)를 경기도 안양시에 구축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3분기 준공을 목표로 신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 평촌2센터 착공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하는 평촌2센터는 연면적 4만 450㎡로, 지하 3층, 지상 9층, 약 10만대 이상 서버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급 규모로 수도권 지역 7번째 IDC다.

1999년 국내 최초로 서울 논현동에 전용 IDC를 구축해 IDC 사업을 시작

한 LG유플러스가 평촌메가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짓는 하이퍼스케일급 IDC다.

LG유플러스가 신규 IDC를 구축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 평촌2센터의 큰 특징은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설계 단계에서도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 서버가 놓인 바닥 아래 냉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 이중마루를 제거하고 서버에 직접 냉기를 공급하는 새 공조시스템을 통해 서버실 내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특정 지점이 온도가 높은 핫스팟을 최소화했다.

고객 요구사항별 다양한 전력 제공



LG유플러스가 축구장 6개 규모의 '평촌2센터'를 짓는다.

/LG유플러스

도 가능하다. 한편으로부터 154kV 수전 전력을 통해 고객 요구 및 장비특성에 맞춰 랙당 최대 20kW까지 다양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객 확장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 IDC는 2020년 2278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 성장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